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삼성중공업, 컨테이너선 2척 수주

삼성중공업이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로부터 컨테이너선 2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해당 선박은 13,000TEU급 컨테이너선이며 총 계약금액은 2,292억원으로, 2022년 12월 말까지 인도 예정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현대중, 친환경 미래 사업에 1조원 투자

현대중공업은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및 미래 선박 개발, 건조기술 개발, 친환경 생산설비 구축 등에 향후 5년 간 최대 1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힘. 이를 위한 투자자금은 비상장사인 현대중공업이 IPO(기업공개)를 통해 연 내 20% 규모의 신주를 발행 및 조달할 계획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바이든, 유조선 시장에 도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반 송유관 정책이 탱커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보도됨. 바이든은 취임 당일부터 Keystone Xi 프로젝트를 취소했으며 이는 곧 해상 원유 수송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보도됨. 바이든 정부의 반송유관 정책이 미국 GoM(Gulf of Mexico)지역 정유 공장들의 Heavy Sour 오일을 수입량 확대에 이어질 전망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대우조선, 올해 수주 총력전

대우조선해양이 2021년 경영목표로 수주 77억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힘. 2020년 실적인 56.4억 달러 대비 +37% 증가한 목표이며 생산물량 감소에 따른 2021년 일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Wan Hai Lines inks deal for a dozen boxships at Nihon worth \$565m

대만의 Wan Hai Lines가 일본의 Nihon Shipyard에 컨테이너선 12척을 발주했다고 보도됨. 해당 선박은 3,013TEU급 컨테이너선이며, 척 당 선가는 4,710만달러라고 보도됨. Wan Hai Lines는 122척의 선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운영 선박량 기준으로 세계 11위의 컨테이너 선사로 알려짐. (TradeWinds)

Rosneft upbeat on huge Russian oil project despite headwinds

러시아의 석유업체 Rosneft가 동시베리아지역의 Vostok Oil 개발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고 보도됨. 최근 미국의 제재를 두고, 해당 프로젝트는 해양프로젝트도 unconventional 프로젝트도 아니라며 미국이나 유럽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Upstream)